

#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 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교과과정 분석을 통하여

한 부 회\*

## <목 차>

1. 서 론
2. 도서관학과 정보학교육
  - 2.1. 교육영역의 변화
  - 2.2. 교육과 전문협회의 역할
  - 2.3.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장래문제
3.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의 분석
  - 3.1. 도서관학교육의 일반적인 경향
  - 3.2. 정보학분야 교과목의 분석
4. 대덕 전문연구 단지내의 정보전문직에 관한 설문 조사분석
  - 4.1. 방법 및 회수율
  - 4.2. 자료분석
5. 발전적인 도서관학 교육의 방향
6. 결 론

## 1. 서 론

도서관 전문직에 관한 교육은 도서관 설립과 더불어 매우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1887년 이전의 도서관인을 위한 교육은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도서관의 말단자리에서 시작하여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여 성공하는 것과 대규모 도서관들이 개최하는 교육강습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었으며, 정규과정의 대학교육은 1887년에 시작되었다.<sup>1)</sup> 따라서 서양의 경우 도서관 전문직을 위한 정규교육의 역사는 대략 1세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1957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 역사는 사반세기가 조금 지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점에서 볼 때 도서관학교육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눈부신 발전을 계속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중 금세기 중엽부터 정보학교육이 도입되었고 이에

\* 충남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

1) Josse H. Shera,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1976), p. 139.

따라 도서관 전문직교육도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종래의 사서직, 문서관리직을 포함하여 정보전문직들은 이와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배출되는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교육은 주로 도서관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양화 되고 세분화되는 전문직교육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고, 급기야는 외국의 경우 새로운 학과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이들 전문직을 위한 교육은 포괄적으로 통합된 조직안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 이 분야의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많은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들 전문직들은 서로 공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스웁크(R.C. Swank)는 도서관학과 정보학은 서로 공통된 세가지 분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자료와 이용자, 기록자료의 조직 그리고 정보봉사기관이라는 것이다.<sup>2)</sup> 그러면 이들 전문직의 교육영역은 어떻게 나뉘어 질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보다 균형 잡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 교육방향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가 남게 된다. 본고는 특히 전통적인 도서관학교육과 정보학교육에 중점을 두어 이 두 물음에 답을 해보려는 것이다. 앞에서 문서관리학을 제외시킨 이유는 1981년 한국도서관학회의 주최로 문서관리학에 관한 연구 발표회가 있었으며 그중에서 필자는 문서관리학의 교과과정을 조사연구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이다.<sup>3)</sup>

본 연구가 목적하는 바는 이 두 분야의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어떤 새롭고 완전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도서관 및 제반 정보관리 기관의 전문직 교육도 다른 전문직 교육과 마찬가지로 현실 감각을 가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 목적과 요구에 최대한으로 부합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교육되고 있는 교과과정속에서 정보학 교육의 수준, 범위, 분포등을 사실대로 밝혀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1957년부터 1982년까지 도서관학과가 개설된 25개의 대

2) Raynard C. Swank,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Core Library School Curriculum," *Special Libraries*, v. 58 (Jan. 1967), p. 41.

3) 한복희, "文書管理學과 圖書館學: 圖書館學科 教科目으로서의 文書管理論," 論文集, 忠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v. 8 no. 2(1981), pp. 265-283.

학교 및 대학의 교과과정표가 수집, 비교되었다. 수집된 교과과정을 가지고 각 과목마다 카드를 한장씩 작성하여 학부수준에서 각 영역별아래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교과목명칭들이 사용된 빈도수가 조사, 표시되었다. 그 과목들 중에는 동의어와 유사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한 과목으로 묶고 빈도수가 이에 따라 수정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순위별 교과목들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 정보학분야의 과목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정보학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교과과정 전체에 관한 연구로서 국내의 정규대학 도서관학과와 교과과정에 대한 모형연구와 전문대학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고<sup>4)</sup> 현재 한국도서관학회에 의해 도서관학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서관학 교과과정내에서 과목명칭을 위주로 분석된 것이며 그 교육내용을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이것은 학부과정의 경우 대부분 개설되는 선택과목수의 제한으로, 실제로는 어학부분을 제외하고는 대개의 선택과목이 필수과목처럼 강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현대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컴퓨터의 도입은 정보의 생산과 이용의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처리 방법론들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어떤 직업들은 없어지게 되었고 새로운 전문직 출현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직업의 재분류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보전문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나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도서관 전문직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소수인원이기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도해 보았다.

즉 충남 대덕 전문연구단지내 9개 연구소의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 종사자들은 이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집단이라는 점과, 지역적인 이점을 살려서 질

4) 예로 鄭勳謨, “圖書館學教科課程의 模型化를 위한 研究,” 圖書館學報, 中央大學校 圖書館學會, 4輯(1983), pp.33-75. 김명옥, “전문대학 도서관과(圖書館科)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圖書館學, 韓國圖書館學會, 10輯(1983), pp.71-118. 외에도 수편의 논문과 석사학위논문이 대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되었다.

문지조사법과 면접조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정보전문직 종사자들의 현행업무를 파악하였으며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권고사항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학과내에서 교육되고 있는 정보학과목들의 분석을 통하여 정보학교육의 현황을 밝혀본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도서관학과 정보학 교육

### 2.1. 교육영역의 변화

사회적 장치라고 일컬어지는 도서관은,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변해야 한다. 벡커(Joseph Becker)는 미래의 도서관 및 정보기관에 대해 부분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있다.<sup>5)</sup> 첫째는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나 새로운 기술과 국가정보망과 같은 새로운 정보 환경이 전개될 것이며, 둘째는 더 많은 도서관들이 업무를 자동화할 것이며 셋째는 도서관이 그 국가에서 정보이용과 학습을 위한 접근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Aslib의 회장인 루이스(D.A. Lewis)는 도서관계가 변화하던지 또는 변화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기술적인 측면, 재정적·경제적 측면, 사회적·행위의 측면, 경영의 측면등 네가지로 보았다.<sup>6)</sup>

이와같이 도서관이 내적,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변하게 된다는 것은 이곳에서 일하게 될 전문직에게 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따라서 도서관 전문직을 위한 교육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대해 윌슨(Pauline Wilson)은 도서관학교육이 변해야한다고 보는 세가지 요소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가까이에 와 있다<sup>7)</sup>고 하였다. 그 세가지는 좁아지는 취업의 문, 도서관학과에서 교육되는 정보학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도서관학 교육에 대한 미국 도서관 협회의 지도적인 역할 등이었다.

5) Joseph Becker, "Libraries, Society and Technological Change," *Library Trends*, v. 27 no. 3, (winter 1978), pp. 415-6.

6) D.A. Lewis, "Today's Challenge-Tomorrow's Choice: Changed or be Changed," The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년차회의, Aberystwyth, April 16-18, 1980, p. 2.

7) Paulin, Wilson, "Impending Change in Library Education: Implications for Plan-

미국의 도서관학자들은 특히 1960년대를 전후로하며 과거 어느때보다도 도서관학 교육의 재정의, 교수진, 교육 방법의 개선 및 교육내용의 혁신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커다란 변화중에서도 크게 부각된 점은 도서관 전문직의 영역속에 정보학의 새로운 주제들을 포함시켜 그 연구분야를 확대한 점이다. 이에 대하여 노옥순교수는 “그러나 아직 분명하게 남아있는 문제는 과연 도서관학자들이 이해하는 정보과학의 정의에서부터 어떻게 정보과학이 도서관학과 연결이 되며 또한 어느 정도로 도서관학 교육과정에 포함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보과학의 내용과 도서관학의 다른 내용들과의 통합방법에 관한 것이다”<sup>8)</sup>라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시원한 답은 되지못한다해도 볼코(H. Borko)와 헤이즈(R. Hayes)의 의견은 많은 참조가 될 것이다. 그들은 양상을 달리하는 정보학교육 과정을 크게 네그룹으로 나누었다.<sup>9)</sup> 첫번째는, 이론위주의 과정으로, 이것은 도서관학교 이외의 교과과정에서 볼 수 있고 정보과학을 고유의 방법론과 연구분야를 가진 별개의 학문으로 본다. 두번째는 컴퓨터 과학 위주의 과정으로 이것은 정보과학이 컴퓨터과학과 동일 내지는 보조학문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우선적인 관심은 컴퓨터 자체에 있다. 세번째는 도서관학 위주의 과정으로 이것은 도서관학교내의 정보과학 과정이며 정보검색과 전달에 있어 자동화의 갖가지 양상과 자료의 조직·정리면에서의 자동화과정을 포함하여 도서관에서 컴퓨터의 이용을 강조한다. 네번째는 시스템위주의 과정으로, 이것은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분석 및 디자인등과 관련을 맺으며 실제의 운영이나 봉사보다는 경영과 정책결정등에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도서관학과에서 정보학 과목을 강의할 경우, 과정에 반영할 내용은 앞의 세개의 체계의 경우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화이트(Howard D. White)와 그리휘스(Belver C. Griffith)는 1972~1979년 사이에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에서 온라인으로 추출된 상

ning,”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8/3, (Winter 1978), 160-161.

8) 盧玉順, “美國圖書館學教育的 새로운 方向과 우리의 教育” [국회도서관보], 15/7, (1978), p. 14.

9) H. Borko and R. Hayes Educ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Los Angeles: Univ. of California, Institute of Library Research (1970), 앞 글 p.15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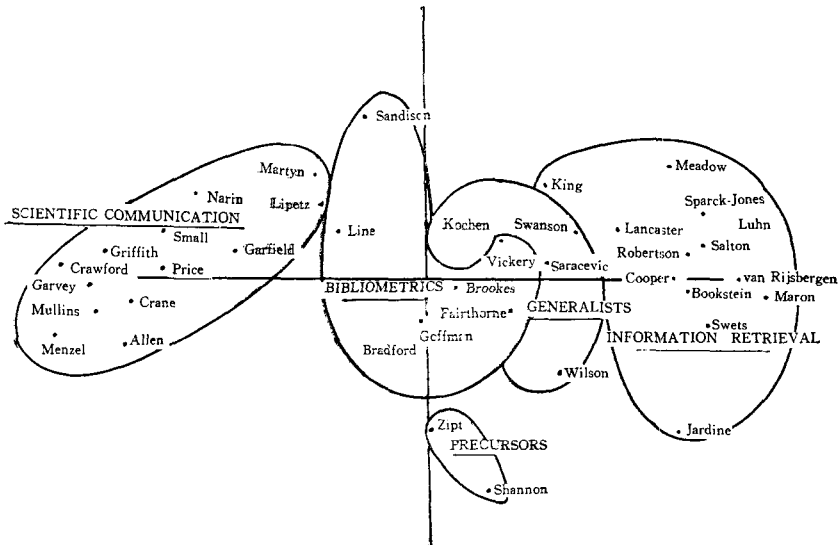


그림 1. A map of information science.

호인용 빈도를 조사하여 정보학의 영역과 정보학의 저자그룹을 규명하고 그룹안에서의 집중도를 측정하였다.<sup>10)</sup> 그림 1은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보학 주제들이 도서관학과 교과과정 안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스웁크는 이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그의 논문<sup>11)</sup>에서 새로운 정보학교육의 내용은 다음 세가지 방법으로 기존의 도서관학 교육내용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했다. 그 첫째는 기존 교과과정에 특수한 코스를 덧붙임. 그 둘째는 기존 교과과정과 병행해서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립하는 경우, 셋째는 기존 교과과정과 개혁된 교과과정을 혼합하여 만드는 경우로서 이것은 융합되고 조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현재의 기본과목들을 전면적으로 새로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학이 좀더 넓고 체계있는 학문이 되려면 그 기본적인 관심을 도서관 실무에서 일

10) Howard D. White & Belver C. Griffith, "Author Cotation: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2/3, (May 1981), p. 165.

11) Swank (1967), pp. 41-44.

반적 원리의 추구로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정보학은 도서관학과 별도로 생각할 수 없으며 통합된 교육과정이 되어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샤임(Lester Asheim)은 71년에 발표된 논문<sup>12)</sup>에서 정보학은, 사서가 되고자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도서관학 이론과 실무에 더하여 정보학을 꼭 배워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도서관학의 한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데이터 프로세싱, 비도서자료와 같은 기계주도형 주제들이 도서관학과의 핵심과목으로 되고 있다. 또한 도구로서의 기계를 점차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학과 새로운 기술들이 전통적인 교과과정 속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되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기로 하자. 이제까지 일관된 도서관의 중심개념이란 인간경험의 기록을 수집·보존·이용시키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 또는 지식을 기록한 문헌은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그 종류나 형태가 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수집·정리·보존·이용의 방법과 기술도 달라지며 또한 그해야만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항상 사회와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기술로 대처해야 한다. 도서관학과 정보학사이에는 용어상 기술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관심과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정보학자들은 같은 목적지로 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소유자들이며 도서관 테두리안에서 전문분야로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3)</sup> 따라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학까지 포괄할 수 있는 통합된 도서관학 이론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도서관학의 과학적 이론을 세우려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설정에 고려해야 할 다음 세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문헌처리, 과정, 자원이다.<sup>14)</sup> 문헌이란 모든 형태에 관계없이 인간경험이 기록된 모든 물체를 말한다. 도서관학은 도서관의 문헌을 통한 간접「코뮤니케이션」기관이며 사서의 역할은 문헌과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중재기능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12) Lester Asheim, "New Trends in the Curriculum of Library Schools," in Herbert Goldhor ed. Education for Librarianship: the Design of the Curriculum of Library Schools. Univ. of Illinois, Grad. Lib. School, Urbana, Illinois: 1971, pp. 71-2.

13) 崔成眞, "圖書館學과 情報學의 共通領域," 국회도서관보 14/2, (1977), p. 17.

14) 알 칸, p. 16.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의 주요 업무과정은 문헌의 수집·조직·제공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은 도서관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문헌과 기술의 결합이다. 문헌은 조직된 자료이며 기술은 사회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문헌을 수집·조직·제공하는 일련의 기술과 지식을 말한다.

이와같이 우리의 전문직은 그가 속한 특수한 사회환경에 항상 의존하였으며 모든 도서관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즉 도서관이 속해있는 문화권에 따라서 그 목표와 가치기준은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도서관학교육도 봉사하는 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그 교과과정도 접해있는 환경에 최대한으로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학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목적들은 기술직·전문직·특수전문직·연구직등 접하는 직종에 따라, 그리고 도서관학과 지방생들의 자질과 배경에 따라 또한 그들이 접하는 각종의 도서관·문서관·정보전문기관등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봉사해야하는 특정 이용자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그러면 이와같은 목적들을 균형있게 달성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은 어떤 것인가? 하바드 윌리엄즈(Havard Williams) 교수<sup>15)</sup>는 말하기를 어느 정보·도서관학과든지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교과과정은 없으며, 그 학과의 시대적 그리고 지리적인 배경·사회적전통·발전수준·교육제도등 여러가지 여건과 요인을 감안하여 적합한 것을 그때 그때 작성 또는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교과과정이다”라고 한 말은 참으로 적합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 2.2. 교육과 전문협회의 역할

도서관학 교육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새로운 공학의 발달과 전문지식을 가진 정보전문가로서의 도서관 전문직의 사회적 요구라는 두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공학적 측면에서는 컴퓨터와 최신공학기술의 발달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전문가로서의 도서관 전문직의 역할변화는 정보

15) 도서관학회, “圖書館教科課程改革을 위한 세미나進行記錄,” 圖書館學 제 6집(1979) 서울, 한국도서관학회, 1979, p. 4.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도서관학교는 새로운 지식을 전수시키고 활용시키는 현장안내이며 이것이 바로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도서관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만 도서관학 전문직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것보다 적합한 이론이나 방법이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 개발되었다면 우리는 지체없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또한 교과과정도 필요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때에 도서관의 처지에 대해 번디(Mary L. Bundy)와 왓셀만(Paul Wasserman)은 “양상을 달리하는 정보요구와 전문적인 봉사요구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전문직들이 과거보다 더욱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응답하기 때문에 보수적이며 구태의연한 재래식도서관은 자취를 감추어 가게 된다”<sup>16)</sup>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도서관 전문직 교육을 보다 전문화시킬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는 먼저 어떤 특정한 교육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교과과정이 구상되고 동시에 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어떤 졸업생을 배출할 것인가하는 등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사(Marta Dosa)는 도서관학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협회의 역할에 대해 다음<sup>17)</sup>과 같이 말했다. 즉 그것은 전문직 교육의 기준을 선정하는 것, 개인을 평가하고 인준하는 프로그램 작성, 발전이 필요한 교과과정의 준비, 인준을 위한 평가기준의 설정, 이와같은 주제에 관한 토론자료를 제공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를 집계하는 것 등이라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도서관학회에서는 도서관학의 교과과정 발전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16) Mary L. Bundy, and Paul Wasserman, “Professionalism Reconsidered,” *College & Research Libraries*. 29/1, (Jan. 1968), p. 25.

17) Marta L. Dosa, “Trends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Information Professionals in North America; presented at the FLD/ET workshop, 16(Sept. 6-9, 1982).

18) 한국 도서관학회의 학술지인 *圖書館學의 叢報*를 참조하여 작성함.

1977. 5. 8: 학술세미나 “도서관 전문직 교육의 현재와 장래의 문제점”
1977. 5. 28: 도서관교육 세미나 “도서관 교육과정,” “도서관 교육 제도 문제,” “도서관 교육기관 및 전문직 수요 전망,”
1979. 7. 19~20: 도서관학 교과과정 개혁을 위한 세미나, 하바드 윌리엄즈교수 강연 “참고업무과목의 내용”, “정보학과목의 내용”, “서지과목의 내용” “도서관학개론 과목의 내용.”
1982. 7. 24~25: 학술세미나, “서지학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정보학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
1982. 10. 30 연구보고: 정필모교수가, 문교부에 연구보고한 도서관학 모형교과과정 시안에 대하여 발표
1982. 12. 16: 도서관학과 교과과정 표준화 소위원회를 구성함.

또한 많은 도서관학자들과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전통적인 도서관학교육과 정보학교육이 융화되고 통합된 교과목을 구성하여 교육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를 해왔다. 1980년 유네스코는 도서관·정보학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커리큘럼의 안내지침을 작성하였다.<sup>19)</sup> 또한 IFLA에서 제시한 도서관학교의 전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12개 분야의 핵심교과목을 발표하였으며<sup>20)</sup> 또한 FID도 교육과 훈련분야에서는 매우 활동적이다. 특히 FID/ET에서 주관 해온 홍콩워크샵과 마닐라 세미나는 교과과정 개혁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다 통합된 도서관학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하여 1984년 9월에 「변화하는 세계속에서의 교과과정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헤이그에서 워크샵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대는 그 세계가 점점 좁아져서 한 촌락화되어 가고 있으면서도 나라마다의 특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학교육도 각기 나라마다 개성을 가지면서 세계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수준에서 전문협회는

19) W.L. Saunders, "Guidelines for Curriailum Development in Information Studies," *Reposts and Bibliographies* 9/1, 1-26(1980). 송영선, 도서관학논집 제 8집, pp. 119-120에서 재인용.

20) "Standards for Library Schools, 1976" *IFLA Journal* 2/4, (1976), pp. 209-223. In R.M. Hayes "the Core Curriculum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FLA Conference, Philippines*, (Aug, 11-15, 1980), p. 22.

그 발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3.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장래문제

직업이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드위즈(Carroll L. Deweese)는 전문직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약에 그 전문직의 지위를 개선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은 다음 세가지 중의 하나를 따르게 된다<sup>21)</sup>고 하였다. 그것은 보다 높은 지위를 일기위하여 현재의 직업을 떠나는 것, 또는 현재의 직업안에서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의 전문직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도서관 전문직의 경우를 생각해 볼때, 앞의 두가지 방법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의 것은 보다 보편화된 것으로 사서들이 전문직으로서 받아드려지게 되어 점차 그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전문직이라함은 전문인의 모임인 협회를 설립하고 대학내에 교육과정이 개설되며 전문직 윤리강령이 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하였다.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월슨은 도서관학교육이 변해야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배출되는 사서들의 어려워지는 취업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고 배출되는 전문사서직의 수요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ALA인가 도서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과 봉급현황을 조사한 보고자료가 나왔다.<sup>22)</sup> 이 보고서는 69개 인가 학교중에서 응답한 64개 학교의 4,050명 졸업자들로 부터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취업현황, 봉급수준, 도서관 종류에 따른 취업, 도서관외의 특수분야 취업등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이다. 특히 1951년부터 1982년사이의 조사에 따른 취업률은 전문직의 수요전망을 알아보기위한 자료로서 주목할만하다. 표 1은 그것을 요약해본 것이다. 약 30년간에 걸쳐 공공·학교·대학 및 대학교의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수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종은 16퍼센트에서 29.7퍼센트로 약 86퍼센트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또한 관심을 끌고있는 통계자

21) Carroll, L. Deweese, "Status Concern and Library Professionalism," *College and Research Library*, 33:31(Jan. 1972). In: Lester Asheim, "Librarians as Professionals," *Library Trends* 27:3, (Winter 1978), p.226에서 재인용.

22) Carol L. Learmont, and Stephen Van Houten. "Phacement and Salaries 1982: Slowing Down," *Library Journal*, 108/16, (Sep. 15, 1983), pp.1760-1766.

표 1 관중에 따른 연도별 취업률

년	도	관			종						
		공	공	학	대	학	및	특	수	및	계
		공	공	교	대	학	및	특	수	및	계
					대	학	및	정보	전문	직	(인
					대	학	및	전	문	직	원
					대	학	및	문	직	직	수)
1951-	55	33%		23%			28%			16%	6,264
1956-	1960	33%		20%			30%			17%	6,327
1961-	65	30%		20%			33%			17%	9,622
1966-	70	28%		23%			34%			15%	17,032
1975		30%		24%			25%			21%	3,368
1980		27.1%		19.5%			25.1%			28.3%	2,429
1982		28.5%		17.4%			24.5%			29.7%	2,063

료는 학위를 받은 후에 능동적으로 새 전문직업을 찾는데 소요된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졸업전에 직장을 얻은 사람들과 90일 이내에 얻은 사람들은 각각 26퍼센트 정도였다. 따라서 3달 이내에 새 직장을 얻은 사람은 반이 조금 넘는 것이다. 또한 이 기사에는 도서관 문주위로 담장이넝쿨이 무성히 올라가고 있는 인상적인 사진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점점 좁아지는 도서관 전문직의 취업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캐나다의 경우도 많은 도서관학과 졸업생들이 전통적인 도서관(공공, 대학, 학교)보다는 특수도서관 또는 기업체들의 정보전문가로서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공급기관등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와같이 변화되는 사서의 역할은 교육과정에서도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3)</sup>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같은 조사가 이루어진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지 우리나라 사서직의 수요전망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가 한편 있다.<sup>24)</sup>

표 2 새전문직업을 찾는데 소요된 시간

인원(%)	소	요	기	간
562(26)	90	일	이	내
146(7)	3~4	개	월	
93(4)	4~6	개	월	
57(3)	6	개	월	이
501(23)	전	의	직	장
561(26)	졸	업	전	에
246(11)	발	견		
	모	름		

23) Katherine H. Packer, "Graduate Library Education in Canada," Presented at the FID/ET Workshop, 6-9 September, 1982, p. 9.

24) 한상완, "우리나라 專門司書職의 需要長期展望, 1979-1991," 도협월보, 20/2, (1-2, 19

이 논문은 제 6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완료되는 1991년 까지의 사서직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 전망을 예측하였다. 1946년부터 1976년 2월까지 배출된 전문직은 총 5,837명이며 정·준사서의 비율은 49대 51로 준서서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1년에는 전문사서직의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학사이후 과정에서 교육시키는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으며 다시 언급하기를 여기에서 요구되는 전문직은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정보전문가를 의미하는 것<sup>25)</sup>이라고 하였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는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은 계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되는 직종이며, 이들을 위해 더욱 수준높은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전문직교육의 필요성은 우리의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있으며,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더욱 수준높은 교육이 요구되는 경향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학과에서 현재 가르쳐지고 있는 정보학과목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과연 얼마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직을 위한 교육이 어떠한 수준에서 교육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 3.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의 분석

본장에서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교과과정의 일반적인 경향과 기초분야중에서 개론과목 및 정보학관련분야의 교육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가 의도하려는 것은 인위적으로 도서관학과 정보학을 구분하려는 것은 아니며 단지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도서관학 교과과정속에서 교육되고 있는 정보학분야의 교과목을 분석한후 그 자료를 토대로 그 분야 과목들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25개 4년제 대학교, 대학 및 학교의 교과과정이 수집, 분석되었다.<sup>26)</sup> 수집

79), pp. 14-27.

25) 앞 글 p. 26.

26)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학교육은 학부가 주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된 자료를 가지고 개론과목의 개설상황과 정보학분야의 과목들이 조사되었으며 이들 과목들이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밝혀두고 싶은것은, 이것은 단지 과목명칭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이다.

### 3.1. 도서관학 교육의 일반적인 경향

전체개설과목은 681과목이었으며 그중 약 35퍼센트가 전공기초 또는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다. 대략 필수와 선택의 비율은 3.5대 6.5이었다. 또한 전체개설과목에 대한 정보학분야의 과목들은 약 13.5퍼센트를 점하였으며 필수과목의 약 10퍼센트 그리고 선택과목의 약 15퍼센트가 정보학분야였다. 표 3은 이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전체 개설과목과 정보학과목과의 대비

분 야	개설과목수	정보학과목 (백분율)
전공기초	32(4.7%)	4(12.5%)
전공필수	204(30%)	20(9.8%)
전공선택	445(65.3%)	68(15.3%)
계	681(100%)	92(13.5%)

또한 개론과목의 변천은 그 학문의 발전과정을 잘 대변해주는 것이라 생각되어 개론분야 과목의 추이 과정을 알아보았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1978년도의 7개 학과들과 80년대의 25개 학과들의 개론과목 명칭을 비교하였다. 표

4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78년도의 교과과정<sup>27)</sup>을 살펴보면 3개 학과는 도서관학개론과 정보학개론과목을 동시에 개설하고 있었고 나머지 학과들은 도서관학개론, 도서관학 및 정보학개론, 도서관학시설, 문헌정보학개론, 도큐멘테이션등의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개설된 학과를 포함한 25개 대학들의 80년대의 개설과목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9개 학과는 두개의 개론과목<sup>28)</sup>을 개설

서는 학부만을 다루었으며 대학원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총 27개 교과과정중에서 전주대는 '83요람에 교과과정이 빠져 있었으며 동의대의 자료는 수집하지 못하였고 대구대의 경우는 4학년 과목이 빠져있었으나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25개 교과과정만이 분석되었다.

27) 1978년도의 교과과정은 이미 발표된 논문을 참조하였다. 권기원,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제도에 대한 고찰." 圖書館學, 제 5 집, (1978) 서울: 한국도서관학회, 1978, pp. 101-124.

28) 이중에서 두 학과는 정보학과 정보학원론으로 개설되어 있었으나 정보학개론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표 4 개론과목의 명칭과 개설학과목의 비교

과 목 명 칭	개설학과목수	
	1978년도	1980~84년
도서관학개론	4	15
정보학개론	3	8
도서관학 및 정보학개론	1	0
도서관학서설	1	1
문헌정보학개론	1	0
도큐멘테이션	1	0
문헌정보학	0	1
도서관학 및 정보과학개론	0	1
정 보 학	0	1
정보도서관학개론	0	2
도서관학·정보학개론	0	1
도서관경영총론	0	1
정보학원론	0	1
계	11	32

하고 있었고 두개 학과는 정보학개론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매우 특이한 것은 두개 학과의 경우 이렇다 할 뚜렷한 개론과목이 교과과정상에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선택과목으로 정보학개론과 될 수과목으로 도서관과 사회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들 학과의 경우는 이 과목들이 개론분야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개론과목의 비중에 따른 조사대상 년도 별 대비

교 과 명 칭	개 설 과 목 수	
	1978년 (비율%)	1980-84년 (비율%)
도서관학에 비중을 둠	5(45.5%)	17(53.1%)
정보학에 비중을 둠	5(45.5%)	11(34.4%)
중도적 입장	1(9%)	4(12.5%)
계	11(100%)	32(100%)

표 5는 표 4를 기초로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론과목명칭이 도서관학 및 정보학과와의 치중도에 따라 재분류된 것이다. 이렇게 재분류를 한 이유는 과목명칭은 대개 그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70년대와 80년대의 개론과목의 치중비율은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을 뿐이다. 이

것은 80년대 전후의 신설학과들이 기존의 교과과정을 많이 참조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의 과목명칭에 대한 자세는 전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1978년도의 통계는 필수와 선택이 구분되지 않은 것임을 밝혀두며 아마 필수과목만을 고려한다면 도서관학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1980~84년도의 경우 선택과목을 고려한다면 정보학비중이 다소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전공필수로서 개설된 개론과목의 변천을 살펴보면 중 연세대학교의 경우 바람직한 변화를 한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다음에 소개한다. 즉 50년대 말의 도서관학입문에서 1960년대에는 도서관학통론으로 강의되다가 70년대 초에는 도서관학원론으로 그리고 70년대 중엽에는 도서관학 및 정보학개론으로, 80년대 초에는 정보도서관학서설 그리고 1982~83년 교과과정에는 두개의 개론 과목 즉 도서관학 개론과 정보학개론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이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다른 도서관학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경향으로는 정보학분야의 교과목 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학교과목의 수가 기존 교과과정 속에서 증가되고 있었다. 표 6은 7개대학교의 교과목수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 따르면 정보학분야의 교육은 한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교의 도서관학 교과과정에서 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비교적 새로 시작하는 대학에서 전통적인 도서관학분야보다 새로운 분야의 교과목이 더 많이 개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에서 근대적 도서관이 발전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전통의 압력이 없었다……(중략)……구시대의 도서관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념에 의한 도서관설치의 가능성이 많았다.”라고<sup>29)</sup> 지적되는 것과 일

표 6 대학교별 교과목수의 변화

설 립 년 도	대 학 교 명	1978년			1980-84년			증 감
		정보학 과목수	전체개설 과목수	비율 %	정보학 과목수	전체개설 과목수	비율 %	
1957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3	28	(10.7)	6	33	(18.1)	△
1959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1	25	( 4 )	2	26	( 7.6)	△
1963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2	22	( 9.1)	5	28	(17.8)	△
1964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1	23	( 4.3)	3	30	(10 )	△
1974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	4	24	(16.6)	4	26	(15.4)	▽
1976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1	31	( 3.2)	5	29	(17.2)	△
1977	효성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5	31	(16.1)	3	18	(16.6)	△
	계	17	184	(9.2%)	28	190	(14.7)	△

29) 金世翊, 圖書一印刷—圖書館史, (서울: 종로서적, 1982), pp. 194-195.



표 7. 교과과정에 나타난 정보학 교과목 명칭의 빈도수

순 위	교 과 목 명 칭	빈도수	누 계
1	정보검색론	15	15
2	정보학개론	14	29
3	도서관자동화	9	38
4	도서관자동화론	9	47
5	정보검색	5	52
6	컴퓨터 정보처리법	4	56
7	컴퓨터 개론	3	59
8	도서관 기계화론	3	62
9	컴퓨터입문	3	65
10	정보검색이론	2	67
11	정보학 특강	2	69
12	정보와 사회	2	71
13	과학 기술 초록 색인 연습	1	72
14	도서관 정보 처리연습	1	73
15	색인 및 정보검색론	1	74
16	색인 및 초록법	1	75
17	색인 및 초록작성법	1	76
18	색인, 정보검색	1	77
19	색인 초록작성법	1	78
20	시스템분석법	1	79
21	시스템 분석	1	80
22	전자계산	1	81
23	전자계산 및 실습	1	82
24	정보관리 전산화론	1	83
25	정보시스템 분석	1	84
26	정보시스템 분석론	1	85
27	정보처리론	1	86
28	정보처리법	1	87
29	커뮤니케이션론	1	88
30	커뮤니케이션 및 매스미디어	1	89
31	커뮤니케이션학개론	1	90
32	컴퓨터이론	1	91
33	프로그래밍	1	92

백상통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이, 그 후에 생긴 많은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느 학과에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것을 보면 여기에는 또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그것은 해당 학과 교수의 전공배경과 교육목적 등등의 차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에 따라 그 학교의 교과과정이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2. 정보학분야 교과목의 분석

다음은 도서관학과 교과과정 안에서 교육되고 있는 정보학분야의 과목들을 알아보았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1971년도까지 전통적인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물론 1966년에 이화대학교에서 「도큐멘테이션」 과목이 개설되었다가 없어졌기는 하지만, 그이후 새롭게 교과목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교과목명칭들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조사된 교과목들을 정보학분야로 보았다. 그결과 25개 학과에서 개설된 정보학교과목수는 92개가 되었다. 표 7은 과목명칭과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8은 표 7에 나타난 다양한 과목명칭들중에서, 동의어나 유사동의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과목명칭들을 같이 묶어보았다.

표 8 교과목의 동의어 및 유사 동의어 그룹

순 위	명 칭	군	선정된 명칭	개설과 수
1	정보검색론/정보검색/색인, 정보검색/색인 및 정보검색론/정보검색이론	정보검색/색인 및 정보검색/색인	정보검색론	24
2	도서관자동화/도서관자동화론/도서관기계화론/정보관리전산화론	도서관자동화/도서관기계화론/정보관리전산화론	도서관 자동화	22
3	정보학개론/정보학원론/정보와 사회/정보학특강	정보학개론/정보학특강	정보학개론	18
4	컴퓨터개론/컴퓨터입문/전자계산 및 실습/전자계산/프로그래밍	컴퓨터개론/컴퓨터입문/전자계산 및 실습/전자계산/프로그래밍	컴퓨터개론	9
5	컴퓨터 정보처리법/정보처리론/정보처리법/도서관 정보처리연습	컴퓨터 정보처리법/정보처리론/정보처리법/도서관 정보처리연습	컴퓨터정보처리법	7
6	색인 및 초록법/색인 및 초록작성법/색인초록작성법/과학기술색인초록연습	색인 및 초록법/색인초록작성법/색인초록작성법/과학기술색인초록연습	색인 및 초록법	4
7	커뮤니케이션론/커뮤니케이션론/커뮤니케이션학개론/커뮤니케이션 및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론/커뮤니케이션학개론/커뮤니케이션 및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론	4
8	시스템분석/정보시스템분석/정보시스템분석론/시스템분석법	정보시스템분석/정보시스템분석론/시스템분석법	시스템분석	4

표 8에 의하면 정보학 교과목 명칭은 대략 8개로 압축될 수 있다. 표 9는 교과목의 빈도수에 따른 교과목 명칭의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표 9의 첫째 난은 각 교과목이 전공필수로 개설된 비율을 나타내며 둘째 난은 8개 과목의 빈도수와 전체 개설과목과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총 25개 학과에서 92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은 평균 한 학과당 셋내지 네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 9에서 보면 정보검색론과 도서관자동화 과목이 전체개설과목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것은 조사대상 학과들의 반 정도는 이 두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정보학개론은 비록 빈도수에서는 3위이지만 전공필수 과목으로서 개설되는 비율이 50퍼센트로서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학개론은 전공필수 과목으로서 그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할

표 9 교과목의 빈도수에 따른 대비표

순 위	선 정 된 명 칭	전 공 필수 (비율 %)	빈 도 수 (비율 %)	누 계 (비율 %)
1	정보검색론	8(33.3)	24( 26)	24( 26)
2	도서관자동화	2( 9.1)	22( 24)	46( 50)
3	정보학개론	9(50 )	18( 20)	64( 70)
4	컴퓨터 프로그래밍	1(11.1)	9( 10)	73( 80)
5	컴퓨터 정보처리법	1(14.3)	7( 8)	80( 88)
6	색인 및 초록법	0( 0 )	4( 4)	84( 92)
7	커뮤니케이션론	0( 0 )	4( 4)	88( 96)
8	시스템분석	0( 0 )	4( 4)	92(100)
	계	21(22.8)	92(100)	92(100)

수 있다.

벨저(J. Belzer) 등은 1968년과 1972년의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미국의 정보학교육의 발전경향을 고찰<sup>30)</sup>하였다. 물론 본 연구와 미국의 연구사이에는 약 10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에 상관없이 개설되고 있는 교과목명칭이었다. 표 10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개설되고 있는 정보학 분야의 교과목의 명칭에 의한 순위를 가지고, 대비표를 만든 것이다. 미국의 1968년과 1972년의 교과과정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몇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그것은 정보학 개론 과목이 정보검색 과목을 앞지르고 있는 것과, 이론과 조직에 관한 과목들이 응용위주의 과목들 대신 그

표 10 개설된 정보학 교과목의 비교

교 과 목 명 칭	개설 빈도 순위		
	본연구	미 (1968)	미 (1972)
정보검색론	1	1	3
도서관 자동화	2	3	8
정보학개론	3	2	1
컴퓨터 프로그래밍	4	9	5
컴퓨터 정보처리법	5	8	4
색인 및 초록법	6	—	6
커뮤니케이션론	6	—	7
시스템분석	6	4	2
정보학 연구 방법론	—	5	10

30) Jack Belzer et al., "Curricular in Information Science: Four Year Progress Repor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6/1, (Jan-Feb, 1975), pp. 17-32.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정보학개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점으로 여겨지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과목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주로 전공필수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음은 그 과목의 중요도를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개설되고 있는 정보학 교과목들은 미국에서 조사된 1968년도의 조사보다는 1972년도의 조사에 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도서관 자동화와 시스템분석의 순위를 바꾼다면 개설되고 있는 교과과정의 빈도순위는 거의 같다고 여겨진다. 물론 미국에서 현재도 72년의 교과목들을 그대로 개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못했지만 보다 정보학의 방향으로 기울어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고 있는, 그들의 연구태열에 들어서서 학문의 길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 4. 대덕 전문연구 단지내의 정보전문직에 관한 설문조사분석

미국은 정보 전문직 164만 1천명을 대상으로 국가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최근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다.<sup>31)</sup> 이 보고서는 정보전문직에 관한 명백한 인식과 그들의 현주소 파악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정보전문직 자체에 관한 정의, 직능, 고용기관, 활동부서, 수행업무, 직명과 교육수준에 의한 정보전문직의 분류등에 관한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문직의 유형을 다음 네가지로 나누었다. 즉 그것은 정보시스템전문가(Information Systems specialists), 정보관리전문가(Managers, Information), 정보 기술직·연구직(Information Technologists and Researchers), 교육훈련 전문직(Educators and Trainers of Information Workers) 등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정보전문직의 필요성은 산업체에서 71퍼센트로 가장 높게 요구되었으며 다음은 지방의 공공기관(22%) 중앙의 공공기관(5%) 그리고 고등 교육기관(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구되는 정보전문직의 업무내용은 그들이 속해있는 기관에 따라 다른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요한

31) Anthony Debons et al.,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New York: Marcel Dekker, 1981).

일부분이 되는 제 4 장은 정보전문직의 요구도가 기업체 및 산업체기관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는 통계자료를 보고 이에 착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기업체 및 산업체기관에서 정보전문직의 요구도가 높다는 것은 그기관의 업무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수집을 위하여 충남 대덕 전문연구단지 내의 각 기술정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주로는 도서관학 전공의 정보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 4.1. 방법 및 회수율

제 4 장을 위해 작성된 설문지는 도서관학과에서 미래지향적인 정보전문직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고도 포괄적인 교과과정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정보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13개 항목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이 설문지는 1983년 11월중에 연구단지내 9개 연구소에 32배를 배포하였으며 그중 23배가 회수되었다. 회수율은 약 72퍼센트이다. 그리고 한군데를 제외한 8개 연구소 기술정보실의 책임자 또는 실장급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현행업무와 도서관학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하였다. 여기에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분석자료는 주로 정보 전문직의 업무 그리고 교육과 관련지을 수 있는 분야인 4개 항목만을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4.2. 자료분석

기술정보실에 근무하는 동안 담당했던 업무를 기간별로 적어보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대개 입사초기에는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서, 분류편목, 대출, 참고봉사 그리고 행정등 모든 도서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점차 프로젝트수행으로 옮겨가서 종합정보처리 시스템의 개발프로젝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업무전산화, 조사분석 및 특정주제조사, 책발간, 교육 및 세미나 기술지도, 정보검색시스템운영, 정보관리업무, 데이터뱅크업무, 기획 및 예산, 정책자료편역, 마이크로자료관리, 연구개발지원프로젝트, 데이터 베이스운영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 업무도 점차 다양하면서도, 세분화되고 있었으나 아직도 소수가 모든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디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가를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약 70퍼센트는 학부도서관학과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 37.5퍼센트에 해당하는 6명은 대학원, 대학원타전공, 단기훈련과정 또는 특수교육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2명은 타전공자라고 응답하였는데 그중에서 한 명은 단기훈련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기타는 KORSTIC(현 KIET)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따라서 현재 전문연구단기내의 기술정보직 종사자들은 대개 도서관학과 졸업생들이며 그중 56퍼센트 정도는 대학원진학 및 각종훈련과정의 기회를 갖고 있었다.

다음에는 현재의 직종에 종사하면서 받은 단기과정이나 연수과정, 회의나 대회등의 참여기회와 개최기관등을 알아보았다. 총 응답자의 70퍼센트인 16명은 연수교육의 기회를 갖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전혀 교육의 기회가 없었다. 또한 응답자의 30퍼센트 정도는 한번의 기회를 갖고 있었고 각기 13퍼센트정도가 3번과 5번의 연수기회를 가진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자료는 다소 편중된 연수나 교육의 기회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응답자들이 기재한 사항만을 참조하였으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억못한 내용, 또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등이 내재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16개 기관 및 단체가 연수프로그램을 주최한것으로 나타났다. 주관부처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볼때 7대 3의 비율로 나타났다. 주최한 기관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곳은 산업경제기술 연구원(구 과학기술정보센터)으로 약 33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12.5%) 소내신입소원교육(10%), 한국전문도서관 협의회(7.5%), 데이콤사(7.5%) 한국과학기술원(5%), 한국 데이터 통신주식회사(5%), 그리고 미국방성(%)등의 기관이 있었다. 그외에 한국 마이크로필름협회, IBM-KOREA 일본미니컴퓨터교육, 특수주제 전산화교육, IFLA, UNDP, FAO, 그리고 Uesco 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 지식과 기술을 적어보도록 하였다. 응답한 내용중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정보처리법이었다. 그외에도 정보검색, 참고서지, 시스템 분석 및 디자인, 해외데이터 뱅크에 관한 지식, 그리고 도서관 조직관리등이 필요한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소책자 정리, 문장작성, 어학, O.R.,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분류교육 및 참고봉사등도 한번씩 언급되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하여 볼 것은 현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신 정보학 기법과 컴퓨터지식외에도 의외로 전통적인 도서관학 교육에 대한 지식도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1 도서관학·정보학교육에 관한 권고사항

순 위	내 용	응답빈도
1	전산교육의 실시	8
2	기본과목의 철저한 실습(자료조직과 참고서지)	6
3	어학교육(도서분류정도)	5
4	도서관학개론에 철학적 개념의 구체화	4
5	조사·분석기술, 리더십, 통계학, OR,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래밍, 과학기술분야의 서지, 정보학분야등의 교육강화	각 2
6	전문도서관의 경우 주제별 전문지식, 해외 데이터뱅크, 이용자연구, 기본교양, 색인작성, 초록작성법, 키워드추출등의 교육	각 1
	계	58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앞으로의 도서관학 교육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권고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총 23명중 14명이 응답했는데 모두 58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응답자들은 특히 전산관계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어학을 중시해야하며, 3.4학년에서 1로결정후 알맞은 과목선정을 하여 집중지도를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대학과정에서 최소한 본인이 근무하고자하는 도서관의 성격에 따른 부전공제도 도입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기업체도서관의 경우 주제전문서로서의 자질을 키워가도록 하는 교육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있

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외에도 일인 일부전공, 일인 일외국어의 숙달, 포괄적인 기본교육, 실습과목중시등을 권고하고 있다. 물론 이 조사는 단지 대덕전문 연구단지내 30여명의 정보전문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나,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였다. 또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들이 업무수행에서 느끼는 점을 솔직히 말해주고 있었으며 또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끝으로 응답내용들은 도서관학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정보학의 두 분야를 모두 중시하고 있었다.

### 5. 발전적인 도서관학교육의 방향

이 장에서는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제까지 교과과정을 연구한 많은 저자들에게서 제시된 의견들을 안내하고 종합하여 앞으로의 추세를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교과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중심주제는 변화라는 것과 이 변화에 따른 전문직교육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도서관학 교육과 훈련은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실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서적으로서의 훈련이란 사서가 수행하는 업무능력 또는 전문직업무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교육이란 사서가 되기위한 훈련과는 별도로 사서들에 의해 습득되는 지적인 발달의 수준과 관계가 있다<sup>32)</sup>고 한 학자는 말하였다. 따라서 교육은 보다 큰 개념이며 일생의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특정 상황을 위한 준비과정은 훈련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사서가 되도록 훈련되는 것이지 사서로서 교육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도서관학과의 모든 활동을 교육이라고 쓰고 있다고 하였다.

브라암리(G. Bramley)는 최근에 들어와서 도서관학교육이 당면한 중요문제는 현대도서관학에 부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수요목을 개정해 나가는

32) Richard L. Derr, "Educational Concepts in Library Sci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21/2, (Fall, 1980), p. 137-8.



것과 정보학과 도서관학의 관계구명이라고<sup>33)</sup> 하였다. 이것은 교과과정과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스완슨(R. Swanson)은 발전적인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말하기를 교과과정을 계획하는 사람은 전문적지식을 가진 집단의 모든 요소들이 교과과정의 발전에 현신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교과과정은 충분한 깊이와 폭 그리고 기간과 연속성을 가져야하여 학생들이 실무에 적합한 지적인 변화와 행동양식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통합된 것이어야한다<sup>34)</sup>고 하였다. 또한 최성진교수는 앞으로의 도서관학은 정보과학의 이론을 기초로한 새로운 이론체계와 방법론을 수립하여 발전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학문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할것<sup>35)</sup>이라고 했다. 세라도 정보학은 도서관 사서들의 업무활동에 보다 이론적이고도 지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sup>36)</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이러한 학문적인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도사(M. Dosa)는 그의 연구<sup>37)</sup>에서 정보가 개인과 사회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는 이제 이와같은 잠재성과 문제점을 감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와같은 도전을 맞아 모든 국가들은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을 위해 실험과 조사연구가 필요하며 도서관학 교육자들은 각기 국가의 발전계획안에서 정보전문직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입안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장하기를 교육자들간의 경험과 이상적인 생각의 교환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일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성패는 우리의 교육이상이 얼마만큼 멀리까지 수행될 수 있느냐와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것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주장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도서관학교육의 발전에 대비한 것으로

33) Gerald, Bramley, World Trends in Library Education.(London: Clive Bingley, 1975), p. 217.

34) Rowena W. Swanson. "Educ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s a Profession," *JASIS* 29/3, (1978), p. 154.

35) 최성진(1977), p. 23.

36) Jesse, H. Shera,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New York: Bcker and Hayes, 1972), p. 293.

37) Dosa(1982), pp. 22-23.

교육기관들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실현할것을 제안한 노옥순교수의 의견<sup>38)</sup>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제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연구에서는 학문의 본질에서부터 교육목표·교육내용·교과과정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은 각대학의 특성을 살린 교육이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학부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가르쳐야할 학문의 기본근간(fundamental essence)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총의를 획득하는 것이 도서관학 교육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수요목의 작성까지 이어질 것을 제안했다.<sup>39)</sup>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 다른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이론이요 방법인 정보과학의 이론들을 따로 몇과목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기존 학과목에 융합시켜 교과과정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40)</sup> 예를들면 도서관 운영론에서 도서관의 자동화이론을 포함하고, 참고봉사이론에서는 기계검색에 의한 정보봉사를 포함하며, 주제별서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들을 포함하고, 자료조직론에서는 MARC와 시소러스 그리고 초록과 색인작성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필자도 이 의견에 깊이 동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이러한 내용들을 강의할 수 있는 자질있는 교수진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다른 연구에 의하면 한국적인 도서관학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교육을 시행할것과 정보학영역의 제학과목을 위한 실습장을 마련할것등의 제안을 하고<sup>41)</sup>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어떻게 교과과정이 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받을 학습의 내용이라는 것<sup>42)</sup>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

38) 노옥순(1978), p. 20.

39) 權恩瑛, "圖書館學教育의 比較研究," 圖書館學論集. 제 8 집(1981), 내구: 韓國圖書館情報學會, 1981, pp. 1-29.

40) 윤영대, "도서관학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연구," 圖書館學. 第 9 輯, (1982) 서울: 한국도서관학회, pp. 45-46.

41) 권기원(1978), p. 124.

42) 노옥순(1978), p. 16.

다.

이두영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 있어서의 도서관학교육의 방향은 점차 정보학 분야로 옮겨가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과과정에 있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sup>43)</sup>고 하였다. 또한 그는 자동화시스템·데이터베이스·네트웍·미디어·경영부문의 교육등이 도서관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도서관학 영역이외에 특수 주제분야의 전문직 양성이 필요하며 도서관 학교에서 도서관사서직 양성보다 정보전문직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이 미래지향적이라고<sup>44)</sup> 지적했다.

리드(Sarah R. Reed)의 향후 10년간의 도서관학교육의 전망에 관한 1977년 조사연구에 의하면, 교과과정은 정보망을 포함하여 그 국가의 도서관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어야 하며, 도서관의 업무처리와 봉사에 컴퓨터기법의 적용과 경영인으로서의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어야하며 또한 숙련된 사서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에 봉사해야하며 건전한 리더십의 개발과 비도서자료에 대한 기술개발도 요구된다<sup>45)</sup>고 하였다.

보아즈(Martha Boaz)는 미래의 도서관학교육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델파이기법을 통하여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미래의 미래는 어떤 것이며 어떠한 조건과 경향들이 도서관학교육 프로그램과 봉사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sup>46)</sup> 그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sup>47)</sup> 미래에 대한 교육은 특정한 업무의 숙련보다는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식을 수집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해야 하며, 또한 도서관들은 자동화된 정보망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도서관학은 자동화 시스템, 테이터 베이스, 정보망, 그리고 미디어와 같은 교과목들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학교는 학문간, 학과간, 학교간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속교육에 관한 과정

43) 李斗榮, “海外圖書館學科의 名稱現況, 美國을 中心으로,” 圖書館會報, 24/4, (1983), p. 9.

44) 李斗榮, 한국도서관학리 세미나 발표자료, 1983. 4. 30 서울: 연세대학교

45) Sarah R. Reed, “Library Education 1977~1987,”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9/2, (Fall, 1978), p. 95.

46) Martha Boaz, “The Fu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8/4, (Spr. 1978), pp. 315-323.

47) 앞 글, pp. 319-323.

도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내용들은 역시 텔파이 기법에 의해 미래의 도서관학 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프로그램의 목표와 목적, 교과과정과 교수 방법, 교수, 학생, 정부, 프로그램의 운영과 재정, 다른 교육과 관련된 사항등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이중에서 교과과정에 관한 것<sup>48)</sup>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80퍼센트의 학생들은 컴퓨터학, 전자계산학, 경영학과 같은 인접분야 학문과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보좌소와 같은 도서관 개념보다는 전체 정보시스템이 강조될 것이며 참고업무는 봉사위주가 될 것이며 온라인 탐색훈련과 컴퓨터에 기초한 참고봉사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보아즈와 이 연구의 결과는 서로 공통점들을 갖고 있었다. 특히 경영부분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점에 대해 루이스(D. A. Lewis)는 도서관학교육은 경영인으로서의 사서를 양성하도록 해야 하며 사서는 경영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49)</sup>

사라세빅(T. Saracevic)은 가장 포괄적인 정보학교육의 교과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크게 다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sup>50)</sup>

- 1) 기본개념 영역——이 영역은 도서관학의 기초와 정보학개론을 포함한다.
- 2) 이론 및 방법론 영역——이 영역은 연구조사개론, Quantitative Methods. 분류·정보·검색이론·언어와 정보학·복합시스템내에서의 문제해결
- 3) 정보시스템 영역——이 영역은 정보검색시스템·전문정보센터와 봉사·특수도서관·정보시스템등을 포함한다.
- 4) 응용영역——이 영역은 자동화·경영과 설계·연구조사·교육·정책개발등을 포함한다. 우리의 교과과정은 과목 명칭으로 볼 때 이 분야들을 모두 개설하고 있는 셈이다.

48) Kenneth E. Vance; Rose Mary Magrill and Thomas W. Downen, "Future of Library Education: 1975 Delphi Stud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8/1, (Summer 1977), p. 14.

49) D. A. Lewis, "Future of Information Profession." 한국도서관학회주최 학술강연, (Nov. 3, 1983).

50) Tefko, Saracevic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nd Development,"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31/3, (May-June, 1977), p. 137.

## 6. 결 론

전문직으로서의 도서관학 교육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발전양상을 달리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컴퓨터의 등장으로 도서관교육계는 일대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서관학 교육과 새로 불밀듯이 닥아오는 정보화사회를 향한 정보전문직의 요구는 도서관학 교육의 방향을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 앉장에서 여러 측면에서 제시된 변화들 촉구하는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특히 일손이 언급한 도서관학 교육이 변해야 하는 이유로 밝힌 배출되는 사서들의 낮아지는 취업률, 정보학의 강의 현황과 현장실무자들의 요구를 들어 보았으며 전문직 협회의 역할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학 교육의 역사도 사반세기가 지났으므로, 이제는 선진국의 기술과 방법론에 관한 도입과 모방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회적·문화적·기술적 배경과 현상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꾸준한 교육과정 관련 연구를 토대로 하여 독창적인이념과 목표에 근거한 교육내용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그 추이를 알아보았으며 또한 이 자료는 포괄적인 도서관학 교육을 이루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중에서도 정보학의 현재의 교육상태와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파악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이 사회적 요구 및 직업기회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육은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것은 사서와 정보전문가는 주제에 대한 권위자가 아니라 주제현에 대한 권위자라는 것이며, 전문교육의 내용은 특정주제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의 문헌시스템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와 정보는 사서가 도서관 안에서 취급하는 수단으로서 다루어져야하며 도서관의 테두리안에서 사서, 정보전문가, 서지전문가, 그리고 문서관리자도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학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잘 조화된 교과과정을 가지고 도서관 전문직과 정보전문직이 병행하여 교육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함께 정보가 동력이 되는 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학문과 사회의 발전은 이러한 정보의 원활한 공급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누가 축적된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가? 그 해답은 자명하다. 철저한 도서관 및 정보 전문직을 위한 교육의 뒷받침은 이러한 역할을 강력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다.

정보학분야의 과목은 도서관학과 교과과정내에서 설치과목의 약 13퍼센트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공필수로서의 개론과목들은 약 53퍼센트가 도서관학에 비중을 두었고 약 29퍼센트정도가 정보학에 비중을 두어 개설되고 있었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개설되는 정보학과목의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그 과목명칭들은 8개로 축약되었다. 그 과목들은 정보검색론, 도서관자동화 정보학개론, 컴퓨터개론, 컴퓨터정보처리법, 색인 및 초록법 커뮤니케이션론 그리고 시스템분석등이다.

그러나 본고의 내용과 이러한 교과목들이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속에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조화를 이루며 교육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80년대의 도서관학 교육은 도서관 정보학교육이 될 것이라고 한다.<sup>51)</sup> 이것은근래에 들어와서 많은 대학 도서관학과와 명칭에서 정보학 또는 정보경영이란 말이 붙여지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며 또한 지적하기를 80년대의 중요한 논제중의 하나는 도서관학이 정보학이나 정보경영학의 확대되는 개념들을 어느정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문제는 한국의 도서관학계가 당면한 과제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두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리드<sup>52)</sup>는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 교수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혜숙으로 지식을 이식시키는 창조적인 역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것을

51) Edwin S. Gleaves, "Library Education: Issues for the Eightie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22/4, (Spr, 1982), pp. 263-4.

52) Reed(1978), p. 96.

향하여 탐구하는 자세, 바로 이것이 도서관학교육의 당면한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셰라는 학자로서의 성공이 그가 그 자신을 위해 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면, 교수로서의 그것은 학생들이 한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훌륭한 교수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며 강의실에 자신의 일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3)</sup>

우리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자세로 교과과정을 포함한 도서관학 교육분야에 외과적 수술을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도서관학의 학문적인 주제범위를 넓히고 도서관의 발전과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을 구성하기 위하여 통합할 것, 분리할것 그리고 달리 조정할 것은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도서관학 교육목표를 확립함과 동시에 할 수만 있다면 정보전문직 양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학 교육을 해야할 것이다.

53) Jesse H. Shera, " ...And Gradly Teach,"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9 /1, (Summer 1978), pp.60-61.

## Trends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Based On Analysis of Curricular of Library Science.

Bock Hee Hahn\*

### Abstract

Information science is the study how information is transferred and all the intermediate steps of collecting, organizing, interpreting, storing, retrieving, disseminating and transforming information.

Professional education means the transfer of knowledge,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bilities and the infusion of professional attitudes. Training may be defined as practice-based instruction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professional skills. Each is affected by the confluence of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realities of the environment where the learning takes place. We have witnessed controversy about methods of curriculum revision and change. Should information science courses be added to the traditional library science curriculum or should the new approaches be integrated within the subject matter of each individual course?

The article is based upon the assumption that education for librarianship is at a turning point. To provide this information, 25 curricula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were analysed to assist in the study. Also 32 information professionals were asked to assist in the study.

In the experimental part of this study, curricula based on the

---

\*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 als were examined. The most frequently offered compulsory cours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cience" exposes students to a new way of looking at library and information problems. Information retrieval, library automation, computer programming, data processing, indexing and abstraction, communication, system analysis has offered. These indicate a curriculum slowly shift from traditional librarianship to an emphasis on computerization and automation. Also from a questionnaire listing 58 events might influ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